

중남미의 닭고기 생산 환경과 역할

글 Dr. Paul Ahn

번역 이상배 (주)삼화육종 이사

지난 20년간 세계의 닭고기 생산과 소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특히 1984년부터 2004년 사이 닭고기의 1인당 소비는 2배(5kg에서 10kg)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남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세계식량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중남미의 닭고기 생산성장은 3.4백만 톤에서 15.6백만 톤으로 450%나 성장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세계의 닭고기 생산비중은 13%에서 23%로 뛰어올랐다. 세계의 약 1/4이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셈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 미래에는 완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다음 20년후에는 지금의 2배인 32백만 톤을 생산하기를 기대한다.

1. 세계 닭고기 생산에서 중남미의 성장 몫

세계 닭고기 생산에서 중남미가 성장함에 따라 1차적으로 닭고기의 수출비중이 늘어났다.

하지만 독점적이지는 않으며 브라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중남미는 1984년 세계 닭고기 수출의 20%를

기록했고, 2004년에는 31%를 담당했다.

중남미에서 닭고기의 생산은 늘 서구의 닭고기 거물로 여겨지는 미국의 그늘에 있었다. 1984년 미국은 중남미의 약 2배에 달하는 닭고기를 생산했다. 하지만 2004년 중남미는 미국의 생산량에 도달했다.

〈표 1〉 가금육 생산

(단위: 백만톤)

연도	1984	2004	2024
중남미	3	16	32
미국	6	16	24
세계	26	68	110
세계 대비 중남미 비율	13%	23%	29%

* 출처: FAO to 2004

앞으로 20년후 중남미에서의 닭고기 생산은 미국의 상당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윤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남미의 위치는 지역적으로 성공적이며 지역격차 해소의 능력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경쟁적 지역을 능가한다.

몇몇 수요와 공급요인들은 중남미에서 닭고기의 생산이 성공적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고 한다.



2. 중남미는 닭고기 생산원가가 가장 낮다

중남미는 현재 세계에서 생계생산비가 가장 낮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미국보다 약 33% 낮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생산원가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보다 높으며 미국과 비슷하다. 칠레와 같은 국가가 이 범주에 들며 일부 중미 나라와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지역의 곡물생산 보호제도로 인해 생산원가가 높다.

〈표 2〉 세계 kg 당 생산원가 경쟁력

국별	가격
브라질, 아르헨티나	\$40
미국, 멕시코, 칠레, 기타	\$60
생산원가 높은 국가	\$80

저기에는 지역, 국가, 닭고기 생산회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6가지의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 ① 사료원가
- ② 시장
- ③ 노동비
- ④ 사업적 환경
- ⑤ 경제규모
- ⑥ 생산성

중남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와 회사들은 각각 6가지의 요인들에 대해 지난 20년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사료곡물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사료원가에서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인 중남미 국가들은 인건비와 노동생산성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수직계열화 업체들이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키웠다. 중남미의 큰 계열회사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닭고기 영업을 배웠다.

중남미 지역에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세금, 사회적 인프라, 법률적 계약과 법률 등이 있다.

물론 사료는 닭고기 생산비에서 2/3가 투여

〈표 3〉 세계 국가별 사료단가 비교

(단위 : cent/kg)

국별	가격
유럽	39
러시아	38
중국	36
태국	35
칠레	30
멕시코	30
미국	29
아르헨티나	25
브라질	25

〈표 4〉 국가별 도계장 인건비

(단위 : cent/kg)

국별	가격
유럽	22
미국	17
멕시코	12
아르헨티나	10
칠레	9
태국	8
중국	7
페루	6
브라질	6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두 나라는 사료원가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멕시코와 칠레 두 나라도 역시 사료원가에서 경쟁력이 있다. 몇몇 중남미 국가들은 곡물 무역장벽 때문에 사료원가가 매우 높다.


사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인건비인데, 중남미는 매우 경쟁력이 있다. 거의 모든 중남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며 노동

생산성은 높다.

브라질과 페루는 인건비 수준이 가장 낮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도 약간은 높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다.

3. 소득의 증가, 원가의 감소가 왕성한 수요를 만든다

중남미에서 닭고기 생산을 왕성하게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생산원가 감소의 조화이다.

중남미에서 1980년대 1인당 소득의 증가는 약 1.4%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의 감소로 닭고기의 소비증가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닭고기의 가격이 떨어질 때 소득의 증가로서 닭고기의 소비에 영향을 주었다. 

스트레스 풀어주는 처방전

1.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나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아내 그에 따라 행동하라.
2.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다.
 - 예전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연상케 하는 음악을 들으면 좋다.
3.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급한 일부터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보자.
4.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 목표를 세우고 바쁘게 살아가라. 적절히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